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김 효 정*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가족소비자학과 부교수)

제 3의 화폐라 불리는 신용카드는 경제적 혜택과 심리적 만족감 등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올바르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채로 인한 파산에 이르게 되어 소비자 자신과 국민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중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이들은 '금융문맹'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계층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유용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신용카드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보유수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2.2%가 신용카드를 1개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의 이용회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동기로는 본인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가 57.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주로 구입하는 제품은 의류, 구두가 37.8%, 기타(책, 화장품 등)가 26.7%, 음식이 15.6%이었다. 신용카드 이용 후 주된 지불수단은 신용카드와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반 정도인 경우가 31.1%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 이용한다 26.7%, 아직도 현금으로만 구매한다 24.4%이었으며, 전적으로 신용카드만 이용한다는 2.2%에 불과하였다.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를 5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값이 3.19로 신용카드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이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점 만점인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평균값이 4.96으로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용카드 관리행동의 평균값은 5점으로 환산한 결과 3.17로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 용돈, 신용카드 관련 교육 경험 여부, 신용카드 보유수,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 신용카드 이용회수(년 5회 이내), 신용카드 이용기간(3년 이상), 신용카드 대금 결제원(내가 직접 버는 것과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합쳐서 충당함), 그리고 부의 직업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로부터 대학생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관리행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신용카드 발급회사,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신용카드 관리행동에 대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된다.